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쉽게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봄 새싹이 자라기 전에 나무가 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상한 가지와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잘려진 가지는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거나 또는 불태워집니다.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은 착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밖으로 던져지고,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지는 가지처럼 메마르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때에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더욱 성장하여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한 번씩 맞닥뜨리는 큰 바람에 부러지는 가지를, 큰 우박이나 병충해를 당해 말라버리고 열매를 못맺는 가지를….

우리가 맺는 열매는 또한 어떤 열매일까요? 나무를 벗어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2독서에서 요한은 권고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요한 1서 3, 23~24)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서 얻게되는 열매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2독서) 우리가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착한 목자 이십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압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양 본당 양호준 델피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자 이민의 날입니다. 전 인류를 돌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고국을 떠나 이주생활을 하는 이민자와 난민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돼 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세상 곳곳에서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맺읍시다.

입당성가 :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9장 26절-31절

안 내 :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합니다.

묵 상 : 사울은 주님을 체험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체험을 믿어준 바르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도 그를 받아주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활동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2독서 : 요한 1서 3장 18절-24절

안 내 : 하느님의 계명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묵 상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느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5장 1절-8절

강 론 :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68번 ‘오묘하온 성체’

영성체 후 묵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깊이 뿌리내린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습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머물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이신 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당신에게서 뺏어나간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성실, 온유, 절제, 신의, 호의의 열매들은

이웃에게 전달되어 주인이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하느님 포도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 공소사목 성금

김득순님	10,000원	말응공소	10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2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처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 일시 : 5월 16일(수) 10:00 - 13: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교구 내 성체분배 소임을 수행하게 될 수도자, 선교사 및 평신도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 신청 : 5월 8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교구청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운동 본당 (견진성사)
- 5월 6일(부활 제6주일) : 사벌퇴강 본당 (견진성사)
- 5월 13일(주님 승천 대축일) : 남성동 본당
- 5월 20일(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송 본당 (견진성사)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청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청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일(화) 19:00 - 21:30
- 장소 : 교구청 자디 광장 및 성모동산
- 주최·주관 : 안동교구 여성연합회
-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구성 : 묵주기도, 미사, 작은 음악회
- 준비물 : 깔개, 겹옷, 미사 준비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묵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낙동강 세평 비경길 (승부역 - 분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 문의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 5월 6일까지 선착순 120명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 북부 정창훈 010-3827-2275
-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일시 : 5월 13일(주일) 9:30 ~ 17: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 준비물 : 미사준비, 운동화, 간편한 복장
- 참가비 : 10,000원 / 1명
- 신청 : 4월 30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5월 18일(금) 14:00-19일(토)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 652-0591 / 010-2785-0591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미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 (15쌍)
- 일시 : 5월 26일(토) 14:00 - 27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 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안나의 집 가족과 함께 사실 어르신 모십니다.

- 내용 : 아름다운 삶, 따뜻한 동행, 행복한 안동 안나의 집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함께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여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 주소 : 안동시 남후면 암산길 258-12
- 문의 : 054-859-1764 / 010-2242-1764

“이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이민의 날 담화문은 교황님의 이민의 날 담화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전하며 우리의 현실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발과 여정과 도착, 그리고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로 체험하는 모든 단계에서 공동체는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톨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민과 난민에 대해 너그럽고 신속하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 습니다.

먼저 **환대하기**는 무엇보다 이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목표한 국가에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도주의 비자와 가족 재결합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환대는 **인간 중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며 이주민에 대한 환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성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주 사목을 하는 이주민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 해 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만으로도 머나먼 땅을 찾아온 이주민 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기는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사관의 적절한 지원, 언제라도 신분증을 직접 소지할 권리, 공정한 사법 접근권, 개인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 최저 생계비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은 미성년 이민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이민은 이민자 신분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억류에서도 제외되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을 가질 보편적 권리가 인정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때 마땅히 국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증진하기는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 “노동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일치를 지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과 난민을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하고, 모든 이에게 고용, 언어 교육, 시민권, 그리고 모국어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을 교황님께서서는 격려하십니다.

마지막 동사 **통합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존재로 생겨나는 문화 간 상호 필요로움을 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은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통합의 과정은 재정적 또는 언어적 요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또한 도착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이민에게 특별히 합법화의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정상 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적 차원의 책임을 공유하여, 이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행동을 결행하려는 바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2018년 말 이전까지 두 가지, 곧 난민과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교구 이주인 사목 단체들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에서 마련된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과 행동 지침을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이민과 난민의 희망과, 또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열망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대의 의미로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이번 담화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 신 철 주교



감사하는 삶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한스셀리 박사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강연을 하였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내려가는 교수 앞에 젊은 학생이 길을 막고 질문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하니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딱 한마디 “Appreciation” 라 했다. 풀이하면 ‘감사하며 살라’이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유효한 치유제도 없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범사에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이 장수비결로 의학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 마음속에는 교만, 인색, 분노, 질투, 탐욕, 음욕, 나태 등 일곱 가지 죄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세로토닌이 펄펄 쏟아져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한다.

언젠가 지인의 권유로 백 가지 감사를 써 본적이 있다. 처음엔 열손가락 꼽기도 힘들 것 같았는데 꼬리를 물고 여러 생각이 일어났다. 사소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며 지나쳤던 일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바람 피할 집과 먹을 양식 걱정 없으며, 사랑하는 가족까지 있으니 이 모두가 은총이다.

백일 무렵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친구가 있다. 엄마라는 말 대신 할머니를 먼저 배웠고 아빠 대신 삼촌이란 말을 먼저 배웠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엄마에게 투정부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 머리가 희끗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는 신체가 허약해서 아침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내 몸에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소녀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다. 나비는 순식간에 천사로 변해 소녀에게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에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내어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겠다. 부탁하고 달라는 청원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야겠다. 주변사람들로부터 입었던 일상의 은혜는 물론 하느님께 값없이 받았던 은혜에도 감사해야겠다.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을 이제 하느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